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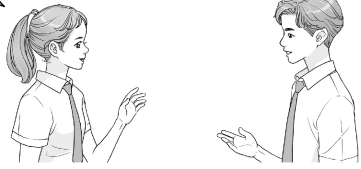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민지'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수철아, 좀 덤지 않니?

응, 민지야. 내가 창문 열게.



- ① 감사 ② 요청 ③ 위로 ④ 칭찬

2. 다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나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인 '너 전달법'과 달리,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① 누가 음악을 이렇게 크게 틀었니?
②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③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속상해.
④ 너처럼 친구를 놀리는 건 나쁜 짓이야.

3.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장 성분은?

- 동생이 (㉠) 먹었다.
○ 나는 어머니께 (㉡) 드렸다.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관형어

4.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글 맞춤법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꽃 ② 밤 ③ 나무 ④ 하늘

5.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나는 책을 읽었다.
○ 강아지가 빨리 달린다.

- ① 다른 말을 꾸며 준다.
②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인다.
③ 부름, 응답, 놀람 등을 나타낸다.
④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백(百)을 뜻하는 '온'이나 천(千)을 뜻하는 '즈믄'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또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 ① 사회성 ② 역사성 ③ 자의성 ④ 창조성

7. 다음 자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ㅁ, ㅂ, ㅃ, ㅍ

- 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다.
②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면서 나는 울림소리이다.
③ 혀끝이 윗니의 잇몸에 닿으면서 나는 잇몸소리이다.
④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 숨이 거세게 나는 거센소리이다.

8. ㉠에 해당하는 자음이 아닌 것은?

훈민정음의 자음 글자는 '상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다섯 개의 ㉠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러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한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ㄱ, ㄷ, ㅌ, ㅂ, ㅍ, ㅈ, ㅊ, ㅎ'을 만들었다.

- ① ㄱ ② ㄷ ③ ㅈ ④ ㅇ

9. 다음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목적: 우리 고장의 문화재 조사하기
• 조사 기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 조사 내용: 우리 고장 문화재의 종류와 특징
• 조사 방법: 우리 고장 문화재 답사
인터넷과 책에서 관련 자료 조사
우리 고장 문화재 해설사 인터뷰

- ① 조사한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과 책에서 찾은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③ 조사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활용한다.
④ 인터뷰 내용은 문화재 해설사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10. ㉠~㉣ 중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자	
처음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실태	— ㉠
중간	• 공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어 친환경적임.	㉡
	•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문제점 - 사소한 사고에도 인명 피해가 커짐.	㉢
	• 안전모의 착용률을 높이는 방법 - 안전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함.	㉣
끝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당부	

- ① ㉠ ② ㉡ ③ ㉢ ④ ㉣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 낸 ㉠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 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애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 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땀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상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 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 쥐바라송꽃이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②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③ 작품 속 인물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④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12. '명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반지를 숨겨 두고 있다.
② 숙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③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했다.
④ 비행기를 병적으로 무서워했다.

13.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6·25 전쟁의 폭력으로 죽어 간 한 소녀를 상징한다.

- ① ㉠ ② ㉡ ③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를 건너서 ㉠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A]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윤동주, 「새로운 길」 -

1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소리를 흉내 내는 말로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후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5. 다음을 참고할 때, ㉠~㉣ 중 **내**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 시에서 ‘길’이 인생을 상징한다고 보면, ‘내’는 인생에서 극복해야 할 시련이나 장애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표현한다.
- ④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지향을 보여 준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밤 새벽 때를 함지에다 머물게 하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지에다 매어 두면 가련하신 우리 아버지 좀 더 모셔 보련마는,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뉘라서 막을쏘냐. 애고 애고, 설운지고.”

천지가 사정없어 이윽고 닭이 우니 심청이 하릴없어, “닭아 닭아, 우지 마라. 제발 덕분에 우지 마라. 반야¹⁾ 진관에서 닭 울음 기다리던 맹상군이 아니로다.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죽기는 싫잖아도 의지 없는 우리 아버지 어찌 잊고 가잔 말이냐?”

어느덧 동방이 밝아 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 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사립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오니 수이 가게 해 주시오.”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 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하였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 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²⁾이라 꿈에 미리 보여 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짓상을 물려 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어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³⁾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 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 1) 반야: 한밤중.
- 2) 천륜지간: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 ‘천륜’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뜻함.
- 3)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효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②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18. ㉠에서 짐작할 수 있는 ‘심청’의 심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걱정 ② 긴장 ③ 분노 ④ 불안

19.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 봉사’가 딸의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 ② 뱃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심청’의 태도가 무례하다.
- ③ 새벽 닭 우는 장면을 떠올리니 희망찬 느낌이 든다.
- ④ ‘심청’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뱃사람들이 야속하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디자인을 말한다. 이 디자인은 처음에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은 물론 공공시설 같은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 옆으로 긴 막대 모양의 문손잡이(옛날에 주로 쓰이던 동그란 문손잡이는 손이 불편하거나 악력이 약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보다 훨씬 유용하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어 음성 안내 등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비싸지 않아야 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품질이 좋고 심미적이어야 하며, 인체와 환경을 배려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김신, 「모두를 위한 디자인」 -

20. 윗글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예가 아닌 것은?

- ① 건물 출입구의 계단
- ②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 ③ 횡단보도의 신호등 소리
- ④ 긴 막대 모양의 문손잡이

21. ㉠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뉜다.
- ② 발효 음식의 예로 김치와 간장, 된장이 있다.
- ③ 지구촌 곳곳의 폭염과 화재의 원인은 기후 변화이다.
- ④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22. ㉡에 들어갈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누가 쓰더라도 차별 받는 느낌이 없어야 한다.
- ③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잘못 다루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야 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파스퇴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확설로 굳혀 놓기까지 했습니다. ㉢ 파스퇴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 파스퇴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지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 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고 밀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 남창훈,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멸균한 육즙에서는 발효가 일어난다.
- ②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 ③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다.
- ④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

2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그리고 ③ 따라서 ④ 왜냐하면

25. ㉠~㉤ 중 윗글에서 ㉤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된 인물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